

## 붙임 2. 대상 수상작: 진실로 인(仁)하고 싶다 - 아동청소년학과 고운비

### < 인(仁) >

孝第也者 基爲仁之本與

효도와 공경은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논어 학이>

나는 불효자다.

인(仁)은 사랑이고 생명이며, 인(仁)을 위해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공경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 것이다. 남의 부모도 나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옳을진대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백만번 지당하다.

그러나 나는 불효자다.

나 역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를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탓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효도’하여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일단은 나의 가정에서부터 인(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지만, 너무도 어려워서 매번 다짐에 그치고 만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고 온전한 인(仁)을 실천하는 군자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무얼 시작해야 할까.

父母 唯其疾之憂

부모는 오직 자식이 아플까 근심하신다. <논어 위정>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집은 지독히도 가난했다. 그때도 그랬다. 나는 사정상 부모님이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가족들과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엄마 목소리는 전화로 가끔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고, 얼마만에 한 번씩 얼굴을 봤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 나를 할머니집에 떼어놓는 것이 당신의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비교적 빠르게 할머니와 사는 삶에 적응했다. 엄마가 있는 것도 같았고, 없는 것도 같았다. 필요한 것은 할머니께서 채워주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고, 엄마는 나보다 더 어린 동생을 키우며 일 하시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삶이었고,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매우 아팠다. 정신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아픈 날이었다. 아파서 그랬을까.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할머니께 죄송할 정도로, 엄마가 보고싶었다. 보고싶었지만 보고싶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올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 날 새벽, 해도 달도 모두 잠든 컴컴한 시간에 조용히 머리맡에 차가운 손이 올려졌다.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며 어렴풋이 눈을 떴다, 이내 잠들었다. 후에 알았지만, 그날 불덩이같은 자식 소식에 잠도 못 자고 그 먼길을 달려오셨단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고, 다음날 일을 가셔야 했으니 아마 그 날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것이다. 이맘때쯤의 기억이 아스라이 흑백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지만, 그 날만큼은 선명하다. 마치 그 부분만 컬러영화 같다. 나는 분명 아주 잘 알고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 그 날은 멀리 떨어진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눈물젖은 슬픈 밤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효자다. 자꾸만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선한 마음에 훼방을 놓는다. 너의 사랑이 정말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온전한 마음이고, 너는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느냐고. 그럼 나는 조용히 가라앉는다. 차마 대답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끝도 없이 가라앉는다.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앓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앓기는 쉽다.<논어현문>

그리하여 나는 이 말이 백 배쯤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죽도록 원망했다. 아니, 원망한다. 지금도 원망하는 것을 보아 하니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마음을 쌓아 두니 이 어찌나 어리석은지. 공자가 본다면 분명 날 어리석다 여길 것이다. 알고 있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소인이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소인에 불과하다. ‘빈이무원난 부이무교이’ 이런 가르침을 남길 정도면, 공자는 가난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찌면 그에게 위로아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번에 가까운 이사를 했다. 월세방을 전전하는 떠돌이 신세였지만, 비바람 막고 온가족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했다. 비바람 막는 집은 있었지만, 비가 오면 천장이 무너져내리고 눈이 오면 온 집안이 얼어붙고 사시사철 계절마다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렸다. 나중에는 우리 집에 벌레가 들어온 것인지, 원래 벌레들이 살고 있던 집에 내가 끼어들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찌면 내가 그들의 터전 위에 끼어들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마다 달리 나오는 벌레도 끔찍했지만, 하루 24시간, 365일 지독하게도 나타나던 바퀴벌

레는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 자려고 누우면 어디선가 벌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삭아삭. 뜨득뜨득. 툭툭. 뭔가를 갹아먹는 소리같기도 하고, 어딘가에 몸을 비비는 소리같기도 하다. 또는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같기도 하다. 20여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벌레에 적응이 될만도 싶은데 아직도 벌레는 끔찍하다. 천장에서 떨어지던 바퀴벌레와 거미는 아직도 트라우마다. 나는 밤만 대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사각사각 소리로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다. 불을 키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무섭다. 그렇지만 나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는 가장이다. 분명 그러하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앓기는 어렵다. 부유해보지 앓아서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앓기는 어렵다는 말에는 수천번 공감한다. 나는 한평생 가난을 저주했다. 내 탓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탓도 아니었겠지만, 저주할 것이 필요했다. 내 삶의 모난부분을 어딘가에 원망하고 싶었다. 화살은 이상하게 틀어졌고, 원망의 화살이 어느순간 부모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미치도록 슬픈 자각이었다.

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

부모의 나이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살아계심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쇠함이 두렵기 때문이다. <논어 이인>

우리 엄마는 올 해로 50세이시고, 아빠는 51세이시다. 논어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나역시도 부모님의 나이를 한 해 한 해 손에 꼽으며 기억한다. 나이드심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는 말에 나는 어쩐지 공감이 된다. 엄마는 꽃다운 28살의 나이에 나를 낳으셨고, 나는 그렇게 23년을 우리 부모님의 큰딸로 자라왔다. 엄마도 아빠도 내 나이였던 시절이 있으셨겠지. 10년 뒤, 20년 뒤, 행복하고 사랑스런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선택하고 나와 내 동생을 키우셨겠지. 나의 첫 웅알이, 나의 첫 ‘엄마’, ‘아빠’ 소리에 크게 기뻐하시며 나의 첫 걸음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겠지. 부모님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셔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당신의 최선으로 나를 키우셨겠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지금은? 나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큰딸일까?

고등학교 3학년, 유난히 화창하던 날. 웬일로 야자를 하루 쉬고 집에 가려던 길. 엄마와 전화를 하며 운동장을 나선 뒤 펑펑 울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하다. ‘3년’. 의사가 아빠에게 말한 가장 짧은 남은 시간. 어찌면 세상에 주어진 남은 시간. 3년. 웬일로 날씨가 이렇게 좋나 했다. 웬일로 이렇게 좋은 날 야자도 빼먹고 집에 가나 했다. 웬일로 햇살 따사롭게 맞으며 길을 걷나 했다. 내 주제에 무슨. 이 모든 가난의

시작이 아파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원망스러웠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허망하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너무 허망하다. 그렇게 밋고 원망스러운 아빠지만, 벌레 득실거리고 곰팡이 피어오른 집이지만, 그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오래오래. 영문도 모르겠는 감정으로 눈물이 펄펄 흘러내렸다. 분명 지나다니는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을테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햇살이 너무 좋았다는 것과, 텔레텔레 펄펄 울으며 집으로 돌아왔던 것밖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빈 집이 나를 맞이했다. 곧게 누우면 딱 차는 크기의 내 방이 한 번도 크다고 여긴 적 없었는데, 네명이서 쪼르르 누우면 터질듯한 거실이 크다고 여긴 적 없었는데, 텅 빈 집이 너무도 컸다. 아빠가 사라진 집은 대궐같았다. 그 후로 4년이 지났다. 다행히 아빠는 아직 내 곁에 계신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참 행복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엄마. 우리엄마다.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 엄마가 병에 걸리셨다. 완치도 안 되는 병이라고 평생 약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한단다. 손은 사용할 수 없고, 심한 날에는 일어서서 기운내는 것조차 버거워보인다. 그래. 어찌면 감사해야 한다. 이 모든 날들이 신이 내게 하루하루 선물로 더 주신 날들이라면, 엄마아빠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늘어난 것이라면 난 백만번쯤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왜 미친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온전한 효도가 아닌 것 같을까. 왜 자랑스럽게 효도하고 공경하지 못할까. 아직도 나는 풀리지 못한 원망이 남아있는 것 같다.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나는 여전히 불효자다.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하늘은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고생스럽게 하고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함이다. <맹자 고자>

나는 이 말이 가장 위로가 된다. 부디 그러기를 바란다. 부디 신께서 나를 강하게 연단하시어 훗날에 크게 쓰시기 위해 갈고닦으시는 것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원망이 되도않는 화살이 되어 나와 부모님을 공격할 것만 같다. 나도 가끔 이 주체되지 않는 슬픔과 원망을 점잖게 통제할 방법을 모르겠다.

물론 나도 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이들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남들이 나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 힘듦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공자님 보시기엔 이기적인 생각일까. 그러나 어찌겠는가. 나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소인이요 한낱 대학생 나부랭이에 불과한 것을. 많은 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벌고 싶었고, 그런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했다.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 하루 이천 원 킅라면 두개로 배를 채우며 공부를 했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이 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알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온갖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고, 생전 용돈 받는 일이 없었기에 그 아르바이트 급여는 차비, 식비가 되기 빠듯했다. 방학때는 일주일 내내 서너개의 일을 하며 월 새 없이 돈을 벌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며 한 달에 200만원 가량 번 돈은 다음 학기의 학비가 되었다. 소득분위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일까, 남들 다 받는다는 국가장학금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만 받을 수 있는 성적장학금을 노리기에는 나의 성적이 부끄럽게도 터무니없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1학년 1학기에 뼈저리게 느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몇 천 만원 빚을 떠안고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만큼은 빚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쓰러지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것 역시도 찬란한 미래를 위한 연단의 과정인걸까. 신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만들려 하시는걸까, 작은 위로를 마음에 던져보기도 한다.

몸이 아프신 엄마는 집안일에서 손을 떼셨고, 나는 당신의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집안일을 하셔달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걷는다. 새벽에 눈을 부비며 오늘 아침은 뭘 차릴까 고민을 하면서 엄마는 20년동안 매일 이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싶었다. 월화수목금토일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 아빠는 20년동안 매일 이런 밤낮을 보내셨겠구나, 싶었다. 학교가고, 아르바이트하고, 과제하고, 눈 붙이고,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학교가고, 무한반복되는 삶.

나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자랑스럽고 어여쁜 큰딸이고 싶고, 동생에게 멋있는 언니이고 싶고, 남자친구에게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이고 싶고, 친구에게는 정답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인(仁)하지 못하여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넘치는 현실이 나도 참 싫다. 언제까지 형체도 없는 가난을 원망하며 부모님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 남과 비교하여 고민하는 나도 싫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불효자다. 효도하고 싶은 불효자다.

인(仁)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인(仁)이란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에 묵묵히 눈을 감는 마음이다. 그 어떤 가난도 아픔도 시련도 초월하고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 마음 하나만 보고 효도하며 공경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서러운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정다운 단어만을 속살거릴 수 있을까. 공자의 말씀은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혼탁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껍이나 난감하기도 하다. 그저 노력하는 수밖에. 내가 조금더 노력하며 살아가야지.

엄마, 아빠.

어버이날, 남들 다 하나씩 전해드리는 그 흔한 카네이션 한 송이가 비싸서 못 샀습니다. 밤을 새워 과제를 하고 반쯤 감은 눈으로 정성을 담아 끓인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말씀해주시니 그 얼마나 기쁘던지요. 편지 한 통과 된장찌개로밖에 드리지 못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공자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인(仁)해야 한다고. 나도 진실로 인(仁)한 사람이 되고 싶다.